남원 120민원 봉사대 생활민원 찾아가는 봉사 '호평'

교통사각지대 중심으로 매월 첫째 · 셋째주 금요일 월 2회 자전거 투어로 시가지 등 순찰

남원시가 시민들의 작은 불편도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120봉사대(국번없이 120, 063-6262-120)가 본격적인 봄을 맞아 5일부터 생활민 원 현장을 찾아가는 자전거 투어를 진행하는 등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자전거 투어는 골목길이나, 하천변, 제방 등 교 통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매월 첫째, 셋째주 금요 일 월 2회 시내 동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투 어에는 시민소통실장, 생활민원담당, 부서담당, 직원들이 함께 시가지 등을 순찰하면서 광고물, 쓰레기, 교통, 노면상태 등을 점검, 정비할 계획

또한 시민들의 불편사항 뿐만 아니라 시정에 대 한 건의나 제안 등 의견수렴을 통해 건강한 공동 체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전거 투어에서는 불법광고물 제거, 쓰레 기, 포트홀 등 현장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생활민 워틴에서 즉시 처리하고, 장비와 예산이 수반되 는 사항이나 복합민원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이첩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이환주 시장은 "자전거 투어를 통해 시민들의



남원시가 운영하고 있는 120봉사대(국번없이 120, 063-6262-120)가 5일부터 생활민원 현장을 찾아가는 자전거 투 어를 진행하고 있다.

일상생활을 좀 더 꼼꼼히 챙기겠다"며 "불편사항 - 년남원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나 건의 사항을 수렴해 친절하고 살맛나는 천

/남원=김기두기자

남원의료원, 2019년 QI발대식 가져

남원의료원은 지역 거점공공병원으로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 스의 질 향상을 제공 하기 위해 지난 4일 2019년 QI(Quality Improvement)발대식을



이번 발대식에서는

15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내원객 만족도 분석을 통한 서비스 질 항상, 작업치 료실 내원객의 손위생 증진 활동, 당일 종합검진 소요시간 단축, 효율적인 간병 인 관리를 통한 서비스만족도 향상 등 다양한 주제로 의료 2 향상과 환자안전 을 위한 QI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박주영 남원의료원장은 "바쁜 업무 중에도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고 민하고 애쓰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안전한 병원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 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 · 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고창지사	563-6999
010-9645-4113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64
010-2333-4791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서신지사 272-941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효자지사 010-8645-9935	익산지사	858-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원광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전북대 고려인연구센터 동북아시아 공동번영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MOU 체결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 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 소(소장 염승준)와 전북대 고려인연구센터(센터장 윤상 원)가 동북아시아 공동번영 을 위한 학술교류 및 공동연 구를 목적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일 원광대 숭산기념 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을 통 해 양 기관은 동북아시아 한 인 문제에 관한 자료발굴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그 성과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

특히 동북아시아다이멘션(North-East Asia Dimension) 구축을 주제로 이루어지는 공동연구의 첫걸음으로 고려인연구센터장 윤상원 교수가 '연해주 고려인의 역 사와 삶'을 주제로 콜로키움을 열 예정이다.

전북대 고려인연구센터는 한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각지에

서 흘어져 진행되던 고려인 연구 성과를 한테 모아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조성 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150년이 넘는 역시를 가진 구소련 지역의 한인 디아스포 라인 고려인을 연구하는 국내 유일한 전문연구소로서 고려인을 넘어 한인 디아 스포라 전체를 연구하는 기관으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한편, 양 기관은 동북아시아의 한인 디아스포라와 '문화적 이산' 등을 다루는 공동연구 진행을 통해 학술대회를 공동 기획하고, 그에 따른 성과물을 자료총서 및 학술총서로 출간할 계획도 세웠다. /익산=장양원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라북도새마을회-완주군협의회, 생명살림 나눔과수원 조성

새마을지도자전라 북도협의회(회장 방세혁)와 완주군 협의회(회장 이훈 구)는 식목일을 맞 아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눔의 소통 공간으로 '나눔 과수원 1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 혔다. 나눔과수원 1호 조성사업은 완주군 화산면에서 40여명의 지도자, 지역 주민, 시민이 참여하여 '나눔 과수원'을 시범적으로 호두나무 60그 루를 식재 했다. 특히, 이웃 누구나 과일을 서로 나누고 생명살림을 의 논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추진한다.

새마을회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실천하고 함께 힘을 모아 생명 의 삶터를 지켜 내자는 '생명살림운동' 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 밝혔 /김영태 기자

정읍시여성단체협의회, 밑반찬 만들기에 구슬땀

정읍시여성단체협 의회(회장 김순아) 는 이달부터 한부 모 가정과 홀로 사 시는 어르신 등에 게 밑반찬을 만들 어 전달하고 있다.



이는 정읍시 양성 평등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결과로 9월까지 매월 2회 진행된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어려운 이웃 50세대를 선정해 여성 단체별로 한부 모 가정과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 밑반찬을 전달하고 있다. 아울러 외 로운 노인들의 말벗이나 심부름 등도 함께 해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 고 있다. 밑반찬을 만드는 첫날인 4일, 여성단체회원 30여명은 여성봉 사관에서 김치와 멸치고추볶음, 시금치, 물 무침 등을 만들며 구슬땀 /정읍=김대화 기자

진안군 주천면, 식목일 맞아 꽃길 조성 7개 마을 봄꽃 4천본 식재

진안군 주천면(면장 안용남)은 식목일을 맞아 지난 5일 용덕리 대촌마 을 등 7개 마을 주민들과 도로변 및 마을 진입로 꽃길을 조성했다.

주민, 면 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화인 철쭉을 비롯 꽃잔 디, 금잔화, 프리뮬라 등 4천본을 거리 특색에 맞게 식재하고 주변 잡초 제거도 실시했다. 이번에 식재된 꽃길은 면민과 주천을 찾는 내방객들에 게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안용남 면장은 "기뭄과 냉해로 피해를 입은 꽃길에 같은 꽃모를 보식 하여 깔끔한 가로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진안=우태만 기자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제74회 식목일 기념행사 개최

산립청 무주국유립관리소(소장 채진영)는 제74회 식목일을 맞아 4월 5 일 전북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국립덕유산지연휴양립에서 '식목일 기념 행사'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시는 '미래 100년의 시작, 새산새숲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립덕 유산자연휴양림, 무주군산림조합,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여해 약 3ha 의 산림에 독일기문나무 7,500여본을 심었다.

특히, 이번 행시는 심어 가꿔 90년 되는 독일가문비 명품숲을 확대하고 자작나무 등 경관 수종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2022년까지 휴양립 내 약 20ha를 경관립으로 디자인하여 국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무주국유립관리소는 올해 6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140ha에 향후 목재 이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편백나무, 낙엽송, 아까시나무 등 6개 수종을 심어 목재산업 발전과 지역주민 소득 /무주=전문선 기자 창출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사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한다.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